

“데리다의 해체론에서의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성”

(『현대철학의 종교적 회귀』, 255~304)

발표 이관표(한세대)

*데리다 (Jacques Derrida, 1930년 7월 15일~2004년 10월 9일)

알제리태생의 프랑스 철학자

해체, 차연, 타자애의 환대, 책임, 메시아성

민주주의의 도래 등을 주장



- 목차 -

1. 서론: 종교적 회귀
2. 전기 철학: 해체론
3. 후기 철학으로의 전회: 윤리적 또는 종교적 전회
4. 후기 철학의 핵심주제: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성
5. 메시아성의 형태: 종말 없는 종말 (끝남 없는 마지막 것)
6. 메시아성의 실천: 도래할 민주주의
7. 결론

1. 서론: 종교적 회귀

필자는 ‘종교적 회귀’라는 말을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철학에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다양한 종교적 용어와 종교적 신념체계가 철학을 논의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레비나스, 벤야민, 데리다로 연결되는 히브리적-유대교적 전통차용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 안에 나타난 종교적 차별, 예를 들어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비난이나 기독교적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에 해당된다.

두 번째, 종교적 회귀란 현대철학의 “신학적 전회”(6쪽)를 지시한다. 바디우의 불만처럼, 현대철학은 히브리적-유대교적 신학의 유산, 즉 절대초월의 영역, 선물, 종말론, 도래 등의 형식을 가지고 와서 서구의 전통인 그리스적 사유형식과 대결함으로써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세 번째로 종교적 회귀란 “믿음을 갖는 종교성”(17쪽)의 요청과 연결된다. 전체 존재의 근거를 파악해 들어가는 철학은 이제 현대에 이르러 무근거 위에 서게 되었으며, 우리의 존재 전체가 사실상 일종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여 설명될 수 밖에 없음을, 즉 불가해성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

앞의 세 가지 의미 외에도 종교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이 현대철학 안에서 발견되며, 이 책은 바로 이러한 현대철학 안의 종교적 요소들을 발견하여 비판 및 진단하고, 나아가 그것이 가진 실천적 의미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본 발제자가 맡은 6장은 데리다 사유 안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회귀이며, 특별히 이것은 데리다가 윤리적-종교적 전회 이후 후기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메시아성에 대한 논의이다. 그의 메시아성은 메시아주의라는 정형화된 종교이해의 극복영역이면서 동시에 그 형태에서는 선물적, 도래적, 타자환대적이며, 그 실천에 있어서는 해체적 민주주의의 영원한 개방성을 지향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본 책 6장은 데리다가 후기에 이르러 경험하게 된 “윤리적 전회”가 정치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사용되는 메시아성 이론이 정치적 담론으로도 유효함을 드러내고자 한다.(257쪽)

2. 전기 철학: 해체론

데리다는 전기에 해체 철학자로서,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아 전통철학, 형이상학,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철저한 저항자로서 유명해졌다. 그가 말하는 해체란 간단히 말해 차연이며, 차연을 통한 불확정적 진리의 확인이다. 차연(Différance)이라는 개념은 1963년 논문 “Cogito and the History of Madness”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로 다름과 지연이라는 두 가지를 함께 표현한다. 차연이란 차이에 의한 지속적 지연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기표가 기표와 매칭되는 과정은 수많은 기표 사이의 차이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기표가 무한하다는 점에서 결코 확정될 수 없이 지연되는 사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예와 같이 모든 진리는 늘 차연되며, 확정되지 못한다. 이처럼 진리의 불가해성과 말의 유희로 특징지어 지던 데리다 철학은 후기에 이르러 현실사회와 관계를 맺으면서 실천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3. 후기 철학으로의 전회: 윤리적 또는 종교적 전회

- 데리다는 70/80시대 다양한 세계정치의 변화 안에서 레비나스의 영향을 통해 윤리적 전회를 한다.
 - 1) 주체는 타자를 무조건 환대해야 한다.
 - 2) 타자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는 윤리적이며 종교적이다. “윤리적 관계는 종교적 관계이다.”(256)
- 70/80시대는 전세계적으로 정치적인 것, 국가, 주권성 등의 개념이 신학적 개념으로 해석되면서 종교적 전회, 즉 일종의 종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체계와 설명이 나타났던 때이다.
 - 세속 정치가 종교적 전회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시점에 데리다는 타자에 대한 책임을 초월적 윤리로 강조하면서 이러한 종교적 전회의 전쟁터에 뛰어든다.
 - 주고받는 세속적 윤리가 아닌 무한책임을 지닌 타자윤리로 전회하면서 이것을 종교적 전회 안으로 던져버리고, 그럼으로써 정치적 실천을 모색한다.
 - 앞서의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꺼내드는 윤리적, 종교적, 정치적 만능키가 바로 ‘메시아성’이다.
 - ‘메시아성’은 세속 정치가 여전히 함몰되어 있는 일종의 로고스중심주의 혹은 그리스적 보편주의에 대한 저항이면서 동시에 전통적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 메시아성에 대한 논의는 전적으로 타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그리스적 사유와 히브리적 사유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히브리적 사유의 출발점은 절대적 타자의 무조건적 구원이다. 주체의 입장에서 사건의 원인과 목적 모두가 자기 자신이 아닌 타자이고, 그는 절대적이기에 인식이나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 물론 데리다는 레비나스의 절대타자가 가끔 실체화된다는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차연을 절대타자와 연관시킨다. 이것은 부정신학도 아니며, 그 어떤 실체화 및 본질화, 혹은 무엇인가 ‘있다’라는 뉘앙스 전부를 거부한다. 오히려 거기서 데리다는 흔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 차연 안에서 타자는 절대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나로 하여금 책임 속에서 자기를 열어놓고 환대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만 흔적을 가질 뿐 어떠한 종교적 타자로 고착될 수 없다. 이러한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그는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성”을 제시한다.(263)

4. 후기 철학의 핵심주제: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성

-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성”이란 카푸토의 “종교 없는 종교”와 같이 기존의 종교적 형식과 실체화를 해체하고 지속적으로 차연되는 진리론을 드러내는 개념이다.

- 데리다는 “메시아성”을 통해 환대, 타자에 대한 책임, 도래할 민주주의를 성립시키려 한다.

- 메시아성이란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는 일종의 구조이다. 메시아란 도래하는 것이며, 절대적으로 주도권이 우리가 아닌 저쪽에 놓여 있는 비대칭적 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메시아의 도래란 우리의 모든 기대, 바람, 계획을 허물고 우리를 전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옮겨놓는 신적 사건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미래 또는 정의의 도래로서의 타자의 도래에 대한 열림이지만 예측의 지평과 예언자적 예시가 없다.”(267) “이성보다 타자를, 타자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계산적, 교환적 경제를 초월한 선물을, 미래와 약속을 그리고 고착된 법에 제한되지 않은 정의를 불러온다.”(267)

- 데리다의 메시아성은 사막-같은 메시아주의라고 표현된다. “이 사막은 다른, 심연의, 혼돈의 사막을 의미한다. [...] 타자의 도래, 정의로 도달하는 것의 절대적, 예츨 불허적 고유성을 기다리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입의 텅 빈 구멍의 광활함, 잉여, 비균형을 의미한다.”(268)

- 메시아성, 즉 사막-같은 메시아주의가 데리다가 정치와 종교를 말하는 근거이다. “이 메시아적 종교가 홀로 종교라는 주제에 대한 합리적, 보편적 담론을 허락한다.”(269)

- 이는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전통과 가깝지만, 완전히 유대적이지는 않다. 데리다는 오히려 해체, 차연으로 나타나는 비결정성의 힘을 말한다. 오히려 신은 유대교적인 현현이 아니라 흔적이다. 모든 종교의 신은 신 자체가 아닌 신의 흔적이라는 측면에서 데리다의 메시아성은 개별 종교 안에 귀속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도 함께 한다. 기독교는 부재나 빈틈을 허락하지 않는 그리스적 존재론에 매여 있다.

“순수 차이인 흔적은 충만함 밖의 현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흔적은 일반적 의미의 절대적 근원이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의미의 절대적 기원은 없다는 말과 같다.”(273)

- 흔적은 텅 비어 있는 사막이며, 거기로부터 모든 것은 출발한다. 텅 비어 있는 곳에 무엇인가를 세우고 어떤 것이든 집어넣고자 하는 것이 기존의 종교라면 차연을 통해 데리다는 지속적으로 그 텅 빈 공간으로부터 시작되어 전개되는 해체의 과정을 메시아성이라 부르며 기다린다. 기대하는 것이 아닌 기다림이며, 나를 위한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타자 자체를 기다림이다.

5. 메시아성의 형태: 종말 없는 종말 (끝남 없는 마지막 것)

- 데리다 메시아성은 그 형태에 있어 종말론과 함께 간다. 그러나 이 종말론은 종말 없는 종말이다.

- 종말 없는 종말이란 기존 종말론이 강요하는 원인, 결과, 이유 등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점에서 ‘종말 없음’이지만, 동시에 ‘도래’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종말이다. “이 ‘없음’이라는 용어는 종말론의 글들에서 공표되거나 묘사된 재앙과 융합되지 않는 의미의 전복을 의미한다. [...] 기존의 존재나 목적을 초월하는 도래이며, 이 도래가 해체 자체임을 강조한다.”(275)

- “‘도래’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서술이며, 도래는 타자로부터 온다. [...] 도래는 오로지 타자로부터 파생되어지고 절대적으로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것이다.”(276) 도래란 전적으로 다른 사건이라는 점에서 종교적 성격을 지니지만 기존의 종교적 체계를 대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종말이라는 말은 차라리 마지막 것(Eschaton)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낫다. 마지막의 것이기에 절대적으로 밀폐되어 있지만 우리의 소유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무한히 개방적이다.

- 그러나 사막적 메시아 종말론은 개신교 정통신학의 남근주의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거기에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변경된 창조론이나 신정통주의의 신론 등이 지닌 지나친 신적 주권성 강조를 지닌다는 말이다. 여성신학자들은 혼돈, 코라, 심연에 기초한 테홈(tehom)신학을 거절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 이러한 비판에도 여전히 데리다는 신적 잉여, 진리의 불확정성 등을 통한 장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데리다 역시 코라 개념을 사막과 연결시킴으로써 순전한 메시아성이 지닌 폭력적 두려움을 상쇄시킨다.

- 코라란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에서 창조를 위해 존재와 더불어 필요한 요소로 지시한 것으로서 순수 질료, 카오스, 근거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데리다에게는 “궁극적으로 얼굴 없는 타자이다.”(281) 코라는 그 개방성이라는 측면에서 남근주의적 신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각 개체의 존재론을 포기하지 않은 채 동시에 존재론을 넘어설 수 있다.

- 메시아성은 이제 마르크스 유령론의 유령처럼 사라지지 않는 타자성을 강조한다. 유령이란 단어는 절대 죽지 않으며, 언제나 도래하고 회귀하리라는 사실을 지시한다.

- 이러한 유령과 같은 메시아성은 어떠한 실천적 차원을 가지는가? 데리다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기독교적 메시아성의 장점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신의 육체를 예수 몸으로 전이시켜 매개하고, 이것을 보편화하는 것에 힘쓰는 점이다.

“기독교를 특징짓는 육화, 그리스도의 육체의 의한 중재는 영적 육화, 유령화이다. [...] 그래서 종교적인 것과 매체적인 것의 관계, 밀접한 공모성이 존재한다.”(283)

- 선교, 즉 글로벌라틴화가 기독교의 특징이며, 이는 매체의 속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매체가 유령을 회귀시키는 근거는 믿음, 즉 신앙이다. 기독교의 기적이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전 세계에 퍼져서 결국 전 세계적 변화를 이루어내었듯이 이제 현대적 메시아성은 기독교적 매체성이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 퍼져서 새로운 정치적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 매체기능의 예는 텔레비전이다.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는 일종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텔레비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믿음과 신앙을 근거로 정보를 전달하고 인식하게 만든다. “매체에 침투한 것은 매체의 종교 또는 종교의 매체라는 바로 이 종교이다.”(287)

- 텔레비전을 통한 보편적 매체화는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따지기 이전에 일종의 민주화의 결과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즉, 메시아성, 기독교적 글로벌라틴화 등의 종교적 요소들이 이제 매체와 연결되어 회귀하였으며, 이러한 종교적인 것은 민주화라는 정치적인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편적 국제법을 인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종교 또는 믿음의 희망, 약속, 환대에 대한 권리를 실천하게 하고 누리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6. 메시아성의 실천: 도래할 민주주의

- 데리다는 민주화가 ‘도래할 민주주의’에 이르러야 함을 주장한다. ‘도래할 민주주의’ 개념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음을 반성하는 민주주의이며, 이는 곧 해체는 민주주의이다 또는 해체는 정의이다라는 공식적 표현과 함께 한다.

“진리와 정의의 차연 과정을 통해 도래할 미래의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미래적 관점을 견지한다.”(289)

- 도래할 민주주의는 타자에 대한 환대와 더불어 아직 완결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개방되는 체계를 말하며, 이것은 스스로를 윤리적이고 말하면서 폭력을 자행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된다.

- 민주주의는 타자에 대한 책임의 아포리아 없이는 불가능하다. 타자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윤리, 주고 받는 교환윤리의 차원을 초월한다.

- 오히려 “책임감에 매이는 것은 지식이나 주어진 규범으로부터 결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결정의 경험에서이다.”(291) “타자에 대한 책임, 특히 죽음의 선물과 관련해 아들의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타자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는 양상”(291)이다.

- 너무 자학적이고 너무 도덕적이라는 신학자 밀뱅크 등의 비판도 있다. “우선, 비도덕적이고, 둘째로는 불가능하며, 셋째로는 기독교 복음을 왜곡하는 희생의 윤리학”(292)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는 여전히 인간들이 자기 상식이나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판단기준이 끼어들어 있다. 타자에 대한 책임을 평가하는 방법은 도덕과 비도덕, 가능과 불가능, 기독교 복음과 복음의 왜곡이라는 일체의 인간의 평가가 끼어들 틈이 없다. 이 책임은 내재와 초월을 모두 벗어난 메시아성으로부터 주어지며 동시에 종말과 같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해체하며 우리에게 요구해오는 절대적 명령이다.

- 책은 데리다가 이러한 종교적 개념을 정치적 담론으로 위치시키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즉, 종교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오히려 데리다의 도래하는 새로운 메시아성을 통해 정치적 체계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종교적 회귀의 긍정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의 흥미로운 현실에 대한 진단인 자가면역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데리다의 자가면역 개념은 해체의 다른 양태로, 서로 상반되게 영역을 고수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노력이 철저히 와해되어 반대항으로 변하는 아포리아의 구조를 가진다.”(294)

- 예를 들어, 종교와 과학(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그것들은 자신만이 가진 자기방어, 즉 자기 논리에 의해 늘 공격당하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종교와 과학은 자신들이 지키려는 신념들이 자신들의 신념에 의해 무너지는 경우를 경험한다. 그리고 그때 종교와 과학이 선택하는 방법은 서로를 공격하거나 서로의 의견에 의지하는 것이며, 이 상황을 자가면역에 의한 연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이것은 현실정치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오사마 빈 라덴이나 탈레반은 미국이 러시아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길러낸 면역력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미국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이 되었으며, 민주주의 역시 이와 똑같은 위험 요소를 품고 있다. 민주주의 역시 언제든지 집단주의적 불한당, 혹은 불량배 집단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관용, 인도주의, 인본주의라는 좋은 취지에서든 언제든지 나타

날 수 있는 바이다. 인본주의적 행위들은 결국 전체 생명의 멸절과 기후 위기에 봉사한다는 점에서 벌써 민주주의의 남용은 극에 달해있다.

- 이러한 이유에서 민주주의는 차연속에서만 자기일 수 있으며, 늘 도래할 민주주의로서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 이러한 성찰에는 “나와 가장 다른, 완전히 다른, 정확히, 괴물같이 다른, 인식되지 않은 타자와 관련해 책임을 다하는 의무”(296)가 속한다. 또한 이러한 책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다수의 횡포를 법의 이름으로 묵인하는 수동적 자세를 개혁해야 한다. 그것은 그 어떠한 결론도 미리 제시하지 않는 개방적 자세이다.

- “데리다에게 민주주의와 정의는 벤야민의 신적 폭력처럼 한순간의 일격에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차연 또는 해체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구현되어야 한다.”(300) “민주주의 없이 해체 없고, 해체 없이 민주주의 없다.”(300)

7. 결론

- 데리다는 자신의 해체론과 차연을 견지한채 70/80시대의 종교적 회귀에 뛰어들어 타자에 대한 환대와 책임을 통한 윤리적, 종교적, 정치적 영역을 메시아성이라는 개념으로 개방하고자 했다.

-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성이란 기존 종교의 형태가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는 구조이다. 도래하는 것이며, 절대적으로 주도권이 저쪽에 놓여 있는 비대칭적 사건이다. 우리의 모든 기대, 바람, 계획을 허물고 우리를 전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옮겨놓는 사건이다.

- 이러한 의미에서 메시아성은 종말, 즉 마지막 것의 형태를 지닌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사막에서 시작되는 전적인 도래는 곧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개방하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만 하는 전적으로 새로운 근거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 메시아성의 실천과 관련하여 데리다는 기독교의 글로벌라틴화와 매체화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면서 결국 이것이 민주화에 이르러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 실천의 영역은 민주주의이다.

- 그러나 민주주의는 메시아성에 맞추어 도래할 민주주의여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역시 한계적 상황 안에서 집단의 폭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해체와 차연을 견지한 채 지속적으로 개방된 민주주의의 성찰을 언급하게 될 때 거기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의가 가능할 수 있다.

*메시아성이란 ‘아직 아님(noch nicht)’과 ‘이미(schon)’가 역설적으로 공존하면서 만들어내는 긴장의 구조이다. ‘이미’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도래할 확고한 사건이고 희망의 차원이지만 ‘아직 아님’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은 함부로 속단하거나 완결해서는 안 되는 개방적 사건이다. 데리다는 이러한 메시아성을 전기 해체와 차연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종교적 회귀의 시대에 맞추어 실천의 영역으로 적용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성찰해야 할 미래적 과제를 던져주었다.